

美 2020.4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지표 내용

□ '20. 4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050만명 감소* 하여 시장 예상치(-2,200만명)를 상회하였으며 직전 2개월 취업자수는 하향 조정(-21.4만명)

* 1939년 통계편제 이래 사상 최대폭 감소(종전에는 1945.9월 195.9만명 감소가 최대)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952만명 감소(-2,200만명 예상)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98만명 감소(±0.0만명 예상)

— 전 업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가·호텔·식당, 교육·의료, 도·소매 부문의 감소폭이 컸음

○ 직전 2개월치('20.2~3월중)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이 17.2만명, 정부부문도 4.2만명 각각 하향 조정되어 총 21.4만명 하향 조정

□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대비 하락(62.7% → 60.2%)한 가운데 실업률은 전월대비 대폭 상승(4.4% → 14.7%*, 예상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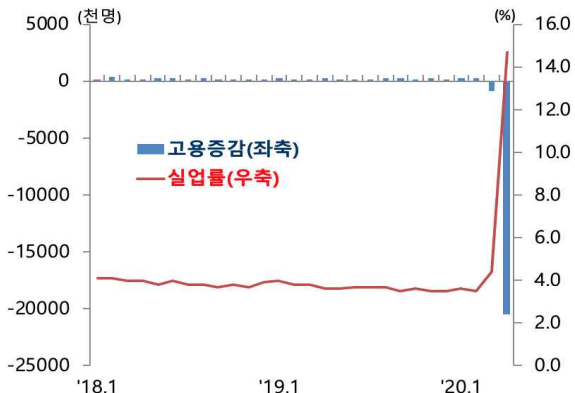
* 1948년 통계편제 이래 사상 최고(종전 최고치는 1982.11월 10.8%). 美 노동부는 “기타 사유”(other reasons)로 인한 휴직자(employed but absent from work)를 실업자(unemployed on temporary layoff)로 분류했다면 실업률이 약 5%p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발표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도 전월에 비해 대폭 상승(8.7% → 22.8%)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상승률(0.5% → 4.7%, 예상 0.4%) 및 전년동월대비 상승률(3.3% → 7.9%, 예상 3.3%) 모두 크게 증가

○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전월대비 증가(34.1시간 → 34.2시간, 예상 33.5시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주요 부문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19.4월	'20.2월	3월	4월
■ 비농업 전체	210	230	-870	-20,500
- 민간부문	185	199	-842	-19,520
(건 설)	26	46	-33	-975
(제 조)	2	8	-34	-1,330
(도·소매)	2	0	-48	-2,470
(운송·창고)	7	0	-7	-584
(교육·의료)	65	52	-101	-2,544
(여가·호텔·식당)	13	59	-499	-7,653
(임시직)	0	-6	-58	-842
- 정부부문	25	31	-28	-980

2. 금융시장 반응

□ 4월 고용지표가 기록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우려보다는 덜 부진한 것으로 평가

※ 고용지표 내용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Goldman Sachs)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려보다 덜 부정적이었음. 4월중 발생한 실업의 대부분(약 1,600만명)이 일시적 해고(temporary layoff)에 의한 것임. 2차대전 이후 일시적 해고 비중이 높은 경기침체가 3차례 있었는데 회복이 매우 빨랐음. 한편, 시간당 평균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노동시간도 증가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 위주의 불균형적인 실업 발생으로 취업자 구성비가 달라졌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 (Morgan Stanley) 설문 응답시 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많고 구직 포기자 급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22.1%에 달할 것으로 추정. 대부분의 실업이 일시적 해고에 의한 것이어서 경제활동 재개(reopen)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재취업할 가능성. 5월에도 취업자수 감소가 계속되고 실업률은 2분기중 정점 도달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2020년말 9.0%, 2021년말 6.3%)
- (Nomura)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재개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채 금리(10년물)는 예상보다 덜 부진한 고용지표, 연준의 국채매입 규모 축소(금주 80억달러/일 → 다음주 70억달러/일), 회사채 신규발행 증가 등으로 상승
- 주가(Dow지수)는 예상보다 덜 부진한 고용지표, 경제활동 단계적 정상화 기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 미달러화(DXY지수)는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영향 등으로 소폭 약세
 - 원화(NDF)는 위안화에 연동되어 등락하다 강보합 마감
- 국제유가(WTI선물)는 美 원유 시추공수 예상치 하회(rig 374개 vs. 387개) 등으로 상승하고 금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감소로 하락

주요 금융지표 동향

		'204월말	5. 7	5. 8 ¹⁾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20	0.14	0.16	2bp
	10년물	0.64	0.64	0.68	4bp
주가	다우	24,346	23,876	24,331	1.9%
	S&P 500	2,912	2,881	2,930	1.7%
	DXY	99.0	99.9	99.8	-0.1%
	달러/유로	1.0955	1.0834	1.0839	0.1%
	엔/달러	107.2	106.3	106.7	-0.3%
	원/달러(NDF)	1,213.7	1,219.6	1,219.5	0.0%
	WTI(\$배럴)	18.8	23.6	24.6	4.6%
	금(\$온스)	1,686.5	1,716.1	1,702.7	-0.8%

주: 1) 뉴욕 17:00 기준

美 국채금리(10y) 및 주가(Dow) 일중 변동

